



특허청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7. 14.(목) 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2. 7. 14.(목)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통상협력팀	책임자	과 장 윤세영 (042-481-8197)
		담당자	사무관 허원석 (042-481-8555)

한국인 WIPO 진출 확대, 사무총장 방한 등 특허청-WIPO 협력 강화

- 특허청장-WIPO 사무총장 회담 -

□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7월 13일(수) 오전(현지시각)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인실 특허청장과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* 사무총장이 만나, 한국 전문가의 WIPO 진출 확대 및 사무총장 방한 등 특허청-WIPO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
* 유엔(UN)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

□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경험을 WIPO를 통해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탕 사무총장과 협의하였다.

○ 탕 사무총장은 개도국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현재까지 약 150억원을 출연한 특허청의 한국신탁기금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.

○ 이 청장은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가 WIPO에서 근무하여 국제특허 출원(PCT, 2021년 기준 WIPO 전체수입의 약 76%를 차지) 세계 4위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WIPO측의 관심을 당부했다.

□ 또한, 이 청장과 탕 사무총장은 한국특허청이 WIPO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.

- 이와 관련하여, 이 청장은 30년 한국 발명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‘한국형 창의발명교육 공적개발원조사업(ODA)’을 올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탕 사무총장은 WIPO의 중기전략계획(2022~2026)도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,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.
 - 이에 이 청장은 한국을 방문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학생발명 장려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할 것을 권유했으며, 탕 사무총장은 내년 방한을 약속했다.
- 이번 회담을 통해 WIPO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, 향후 지식재산에 대한 WIPO 논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

[사진설명]

이인실 특허청장(왼쪽)과 다렌탕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사무총장(오른쪽)은 7월 13일(수) 오전 10시(제네바 시간),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IPO 에서 양 기관간 협력강화방안을 논의 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.